

청소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송수민* · 이회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 경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 의존적 청소년들이 가상세계인 인터넷에도 중독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성향의 하위요소인 성취욕 부족,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무조건적인 수용 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변인이 되고,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소인 충동성도 인터넷 중독의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성격변인의 하나인 의존성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중독과 여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거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이 인터넷에 쉽게 중독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의 성격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BK21 계약교수

I. 서 론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놀라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인터넷의 사용도 인간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이익을 창출하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생활의 무절제함을 가져오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 인터넷의 사용 결과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의 영향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근래에 들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인터넷 중독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의명성이, 가족 내적으로는 애착의 실패와 고립감 및 냉담함이,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의 불완전함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집단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공격적이거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인 지지기반이 취약하며, 사회적응력이 낮다는 점들도 지적되고 있으며,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결과 내성, 금단, 강박적 의존, 자기통제력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연구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요소들을 밝히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형성되어 온 성격적인 성향이 새로운 가상세계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격성향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련성 및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격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즉, 우울감, 낮은 자기효능감, 현실적인 대인관계의 기피 등은 의존적 성격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의존적 성향은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성취욕 부족,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존적 성격성향과 인터넷 중독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로 보인다.

이제 인터넷의 사용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렸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가상세계에 접하게 될 때, 어떠한 개인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어떠한 개인들은 이로 인해서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빠지게 되는지, 즉, 개인적 성격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대처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성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인터넷 중독은 Goldberg(1996)에 의해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이라는 의미로 소개되었다. 인터넷 중독은 단순히 인터넷의 과다사용이나 몰입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강박적인 사용, 집착, 재발, 내성 및 생활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강만수·오익수, 2001)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학업, 직업, 인간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renner, 1997; Morahan-Martin & Schmacher, 1997; Scherer & Bost, 1997; Thompson, 1996; Young, 1999; 송명준·권정혜 재인용, 2000).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게임을 벌이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매력적인 것이며, 중독에의 유인자극이 된다. Rheingold(1993)는 컴퓨터 중독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10대의 남자’라고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친구를 사귀어 정서적인 지지나 위로 등의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통신에 매달리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옥순과 홍혜영 재인용, 1998). 또한, Kiesler, Siegal 및 McGuire(1984)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비언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교모임에서 서먹서먹하고 수줍은 듯한 인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특히 우울한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라고 하였다(윤재희 재인용, 1998). Morahan-Martin과 Schumacher (1997)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 PIU)을 조사한 결과,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인터넷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게임, 도박, 섹스 등에 심취해 있으며, 또한 이들은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소영 재인용, 2000). Goldberg(1996)은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할 수록 가상공간에 빠져 인터넷 중독적 사용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고, 실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인터넷 사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을 통해 얻어지는 유쾌함, 흥분 등의 정신적인 즐거움은 중독적 패턴을 더욱 강화시키며, 또한 중독자들은 깊은 심리적인 문제들로부터 지각된 부적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의 익명적인 상호작용에 매우 끌리게 된다. 그리하여 낮은 자존감, 높은 고독 수준, 타인으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 더 인터넷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다(Young, 1997) 또한, 자신에 대한 인정이나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수정, 2000).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거나 자신감을 얻고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욕구충족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타인의 인정과 돌봄을 받고자 하는 의존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병리적인 방식으로 제3의 대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약물이나 알콜 의존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의존성을 충족시킬 만한

대상이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가상세계가 그 역할을 하며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종속 욕구를 가지며, 의지하고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존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지나친 욕구와 관련된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의 패턴으로(APA, 1994), Millon(1982)은 의존적 성격장애를 '복종적(submissive)성격'의 변형이라고 하였다. 이 성격은 고분고분하고 자기-희생적인 특징을 가졌으며,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최윤경, 1993).

노주선(1994)은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장애척도(MPDS)를 통해 정상인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의존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성취욕 부족'으로 이는 현실적인 일과 업무에서의 능력과 끈기가 부족한 것으로 이것은 실제의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일의 과정 중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는 '무조건적 수용'으로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분리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지지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셋째는 '자존감'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들과 관련되지 않은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넷째로는 '수동성'으로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수동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섯째는 '자신감 부족'으로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자신감의 부족, 무력감 등을 나타낸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을 때, 보다 이탈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불안해 하거나 위축되는 현상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그것에 의존해 버리는 부작용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사회적 적응을 들 수 있는데, Cole(1959)은 청소년기를 특별히 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의 시기라고 하였다(정문희 재인용, 1995). 사회적응력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즉 그가 속해있는 사회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능력이며,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사회에 적응적인 사람은 자기통제와 자발성, 순응과 비순응 간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며, 자기의 감정을 억제만 하지 않고 해방시킬 줄도 알며, 충동적인 행동이 비생산적이고 해로울 때는 그 충동을 억제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사회적응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요구, 능력, 생활장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적 욕구와 적절히 조화가 되는 사회적 역할을 선택하며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 없이 갈등과 위협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중하고도 자발적으로 처리하며,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할 수 있다(전미향, 1997; 정문희, 1995). 그리고, 인터넷 중독경향을 가진 사람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수정, 2000).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능력이 사회적응력이라고 볼 때, 이러한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적응력, 충동성, 책임성의 네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련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제적인 현장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 중독과 개인 내적인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의 상관관계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어떠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어떠한 개인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즉, 이용자의 개인변인에 따라 인터넷 중독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하나인 의존성향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의존 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의존성향은 인터넷 중독과 관계성이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과 관계성이 있는가?

넷째,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은 의존성향과 사회적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남·녀 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인터넷 중독검사, 의존성향검사 및 사회적응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 12명의 질문지 답변자를 제외한 23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측정도구

1)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인터넷 사용장소, 주된 사용영역, 하루평균 사용시간,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묻는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 인터넷 중독 검사

Young(1996)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인터넷 중독검사도구로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 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합계가 50점이 넘을 경우에는 경미한 중독수준, 80점 이상은 심각한 중독수준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이소영(2000)이 수정·보완한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자를 인터넷 중독 질문지에서 문항 평균 3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전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이소영(2000)의 연구에서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자가 청소년 227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1이었다.

3) 의존성향 검사

의존성향은 김영환(1989)이 재표준화한 신판 MMPI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구성된 성격장애 척도(박병관 등, 1991) 중 의존적 성격장애 문항들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제작하여 의존성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노주선(1994)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의존적 성격장애는 전반적인 무력감과 자신감 부족과 수동적인 경향성, 의존적 태도, 그에 따른 주관적인 불편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향은 '성취욕 부족', '무조건적 수용', '자존감', '수동성', '자신감 부족'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의존성향의 다섯가지 하위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는 ‘성취욕 부족’척도로 일의 과정 중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둘째 척도는 ‘무조건적 수용’척도로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분리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지지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의 정도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셋째 척도는 ‘자존감’척도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들과 관련되지 않은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넷째 척도는 ‘수동성’척도로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감과 수줍어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섯째 척도는 ‘자신감 부족’척도로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자신감의 부족, 무력감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노주선(1994)의 연구에서는 의존적 성격장애 5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5.1%였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 202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4) 사회적응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전미향(1997)이 정원식, 김호권의 성격검사(1965)와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의 성격진단검사(1969), Miller의 사회친밀성 척도(Miller Social Intimacy Scale : MSIS, 1982)와 Turner의 3인이 공동제작한 사회관계척도(Provision of Social Relation : PSR, 1983)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번역·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사회적응력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즉, ‘대인관계’,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으로 되어 있으며, 각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항은 역순채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응력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는 주변사람들과의 사교능력, 협동성, 친절성, 활동성 등을 뜻하며, ‘적응성’은 개인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을 뜻한다. ‘충동성’은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경향을 뜻하며, ‘책임성’은 신중하고 자발적인 일처리나 끈기있게 완수하는 정도를 뜻

한다. 전미향(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응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208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연구는 2002년 3월 18일- 24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남녀 공학 중학교 및 안산지역의 남녀공학 고등학교 등 2개교를 표집하여 조사가 실시되었고 최종 분석 대상은 233명이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남녀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111명으로 47.6%, 여학생이 122명으로 52.4%이였다. 학년 분포는 중학생이 53.2%로 124명, 고등학생이 46.8%로 109명이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이였다.

<표 1 > 분석대상

항 목	구 분	빈 도
성 별	남	111(47.6%)
	녀	122(52.4%)
학 교	중학교	124(53.2%)
	고등학교	109(46.8%)
계		233(100.0%)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 10.0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기본 정보 및 인터넷 사용 현황, 인터넷 중독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을 구한 후,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과 인터넷중독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터넷 사용현황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는 집(87.6%), PC방(10.0%)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 이용장소

이용장소	빈도(%)
집	211(87.6)
학교	1(0.4)
pc방	24(10.0)
친구집	3(1.2)
기타	2(0.8)
총 계	241(100.0)

인터넷의 사용영역은 게임 및 오락이 하루 평균 2.9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정보수집(1.75시간), 채팅(1.96)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관련 정보수집은 1.5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도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하루 평균사용시간은 1-2시간(33.6%), 2-3시간(22.9%), 30분-1시간(13.8%) 순으로 나타나 1시간 전후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시간 이상도 5.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 인터넷 사용시간

하루평균사용시간	전체빈도
30분 미만	21(8.8)
30분-1시간 미만	33(13.8)
1시간이상-2시간 미만	88(36.7)
2시간이상 -3시간 미만	56(22.9)
3시간이상- 5시간미만	29(12.1)
5시간 이상	14(5.8)
총 계 241(100.0)	

2. 인터넷 중독현황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사 분석 대상의 32.1%가 중독집단, 67.9%가 비중독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 인터넷 중독 현황을 성별, 학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 검사결과 남학생의 30.2%가, 여학생의 33.6%가 중독집단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별로 비교하여 볼 때는 응답한 중학생의 35.3%, 고등학생의 28.6%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터넷 중독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학교별 인터넷 중독경향

		중독	비중독	계
성별	남	29(30.2%)	67(69.8%)	96(100.0%)
	여	39(33.6%)	78(66.4%)	117(100.0%)
학교급별	중학교	41(35.3%)	76(64.7%)	117(100.0%)
	고등학교	30(28.6%)	75(71.4%)	105(100.0%)

3.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청소년의 의존성향과 인터넷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

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의존성향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향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382$,
 $p<.001$), 의존성의 하위유형 중 성취욕 부족($r=.434$, $p<.001$), 무조건적
수용($r=.428$, $p<.001$), 자신감 부족($r=.388$, $p<.001$)이 인터넷 중독과 유
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수동성은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의존성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인터넷중독
의존성향 전체	.382**
성취욕 부족	.434**
무조건적 수용	.428**
자존감	-.022
자신감부족	.388**
수동성	-.022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인터넷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406$, $p<.001$), 사회적응력의 하위유
형 중 적응성($r=-.363$, $p<.001$), 충동성($r=.433$, $p<.001$), 책임성($r=-.215$,
 $p<.01$)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인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응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인터넷중독
사회적응력 전체	-.406**
대인관계	.062
적응성	-.363**
충동성	.433**
책임성	-.215*

4.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 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의 차이

<표 7>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의 차이

	집단구분	평균	SD	F
의존성	비중독 집단(138)	2.65	.53	28.98**
	중독 집단 (66)	3.10	.61	
대인관계	비중독 집단(146)	3.26	.64	.04
	중독 집단 (70)	3.25	.55	
적응성	비중독 집단(136)	3.21	.54	29.68**
	중독 집단 (67)	2.80	.41	
충동성	비중독 집단(143)	2.71	.72	22.19**
	중독 집단 (67)	3.24	.84	
책임성	비중독 집단(80)	3.20	.57	7.21*
	중독 집단 (36)	2.89	.60	

* $p<.01$, ** $p<.001$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집

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의존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8.98$, $p<.001$) 또한, 중독/비중독 집단간의 사회적응력 하위 유형별 점수의 변량분석결과, 중독집단이 적응성($F=29.68$, $p<.001$), 책임성($F=7.21$, $p<.001$)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F=22.19$, $p<.01$)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의존성향과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표 8> 의존성향과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Beta	t
의존성	.56	.43	4.7**
충동성	.31	.34	3.80**
상 수	1.05		3.1*

* $p<0.1$, ** $p<.001$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소와 인터넷 중독의 중다상관은 $R=.53$ ($F_{2,99}=19.78$, $p<.001$)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인터넷 중독이 설명되는 정도는 약 28.6%였다. 의존성의 Beta값이 .43($p<.001$), 사회적응력의 하위유형 중 충동성의 Beta값이 .3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의존성향이 강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존성향의 하위요소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 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의존성향의 하위요소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Beta	t
성취욕 부족	.18	.18	2.00*
무조건적 수용	.21	.20	2.25*
자존감	-.17	-.19	-2.61**
수동성	-.14	-.13	-1.81
자신감부족	.29	.27	2.98**
상 수	1.78		6.88***

* $p<0.5$, ** $p<0.01$, *** $p<0.001$,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존성향의 하위요소와 인터넷 중독의 중다상관은 $R=.53$ ($F_{5,203}=15.93$, $p<.001$)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의존성향의 하위요인에 의해 인터넷 중독이 설명되는 정도는 약 28.2%였다. 성취욕 부족의 Beta값이 .18($p<.05$), 무조건적 수용의 Beta값이 .20($p<.05$), 자존감의 Beta값이 -.19($p<.01$), 자신감부족의 Beta값이 .27($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성취욕이 부족 할수록, 분리에 대한 불안이 심할수록,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많이 빠져든다는 것이다. 한편, 수동성은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용현황을 알아보고,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집(87.6%)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영역과 시간은 게임과 오락(2.97)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도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을 지목한 어기준(2000), 이소영(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집에서 게임과 오

락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개인화·개인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청소년의 의존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개인의 의존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성의 하위유형 중 성취욕 부족, 무조건적 수용, 자신감 부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의존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Morahan-Martin과 Schumacher(1997)의 연구에서처럼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게임, 도박, 섹스 등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을 볼 때,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은 의존대상은 다르지만, 제 3의 어떤 대상에게 의존하려는 강한 성향을 지닌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의존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돌봄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독립적인 역할담당의 준비가 부족하여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나 동료 또래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고 건강한 방식으로 독립성을 획득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의존적인 사람은 제3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새로운 의존대상이 되어 이에 몰두하는 경향은 더욱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존성향이 강한 사람은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도 더욱 취약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사회적응력의 하위유형중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의존성향과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적응성과 책임성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수정(2000)과 Goldberg(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현실세계에 적응이 어려울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에 중독 되어 있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책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생리적으로도 충동성이 강하고 학업이라는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시

기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의존성향과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의존성향은 사회적응력보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성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취욕 부족',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경향' 등이 인터넷 중독의 영향변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이 낮은 자존감, 고독감,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시달린다는 Young(199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격성향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연구결과의 설명력이 크지는 않지만, 의존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상세계를 접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떠한 도구로, 또 어떠한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개인의 성격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사례수도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성격성향은 다른 성격성향과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는 중복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황수정(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력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의존성향은 사회적응력과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의존성향과 사회적응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제한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의 인터넷 중독 연구들이 중독이 가져오는 결과나 단편적인 정서(예: 소외, 우울감, 외로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었고, 개인의 성격적

특징으로 인해 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질 요소가 많이 있음을 간과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출생 후 오랜 동안 형성되어 온 고유한 성격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보다 쉽게 빠지거나,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에 몰두하는 성격적 기질이나 가지고 있는 근래의 세태를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형성의 초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의존적 성향을 극복해서 인터넷을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수립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만수·오익수(2001). 인터넷중독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1)**, pp114-13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옥순·홍혜영(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통신 중독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노주선(1994). MMPI 성격장애 척도의 구조분석-정상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준·권정혜(2000).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0년 하계 임상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어기준(2000). 청소년 PC 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의 PC중독**. 서울: 청소년상담원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관련성-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에

-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미향(1997).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문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 개념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1993).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PA.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World Wide Web.
<http://www.cmhc.com/mlists/research.html>
- Kiesler, Siegal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10, 1123-1134.
- Morahan-Martin J. M. & Schumacher. P. (199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Rheingold, H.(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 Addison Wesley.
- Scherer, K. & Bost, J. (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Thompson, S. (1996); Internet Addiction McSurvey results.
[http://cac.psy.edu/~ sjt112/mcnair/journal.html](http://cac.psy.edu/~sjt112/mcnair/journal.html)
- Young, K. S. (1997a). Levels of depression and addiction underlying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Young, K. S. (1997b).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Young & Rodgers(1998b) Internet addiction :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ril.
<http://netaddiction.com/articles/personality-correlate.html>
- Young, K. S.(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Jackson(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Vol. 17).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Dependency and Acculturation on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Song, Soo-Min · Lee, Hee-Kyu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at the relationship of dependency, accultura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This study's results implicated that both dependency and acculturation have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internet addition. Dependent adolescents who have inactive and diffident traits were easy to addict internet. Especially, insufficient of achievement, low self-existence, deficiency of confidence, unconditional acceptability which are the sub-factors of dependency effected on internet addiction, and impulsivity that is the sub-factor of acculturation effected on the addiction. This study's results showed that dependency would be one of the factors that effected on internet addiction. Most of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and several factor and on the negative result of internet addic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tried whether personality traits can be a factor of internet addiction or not. Also this study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personality traits as a crucial factor to design a preventive program to internet addiction.

* Hanyang University